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8, Vol. 27, No. 2, 471-482

편집성향 집단의 초기 애착유형

유 혜 린 이 경 숙 이 훈 진†
서울아산병원 정신과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생 편집성향 집단의 초기 애착 유형을 알아보았으며, 각 유형에 따라 성인기 주요 핵심 변인들에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대학생 492명 중 선발된 편집성향 집단 30명에게 초기 애착 표상을 알아볼 수 있는 성인 애착 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을 실시한 결과, 자율형(F)이 9명(30.0%), 무시형(Ds)이 11명(36.7%), 몰입형(E)이 10명(33.3%)으로 분류되었다. 이 세 집단의 자기 및 타인개념 질문지, Beck 우울 척도, 부모양육행동척도, 성인기 애착유형을 비교한 결과, 무시형 초기애착 유형 집단과 몰입형 애착 집단은 통제집단보다 부정적인 자기·타인 개념을 보고하였으나, 무시형 애착 집단이 몰입형 애착 집단보다 부정적인 타인개념을 지니고 있었다. 부모양육행동의 경우, 무시형 애착 집단은 몰입형 애착 집단보다 더욱 방치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몰입형 애착 집단은 무시형 애착 집단보다 부모의 과잉기대가 높았다고 보고 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추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편집증, 초기 애착 유형, 자기 및 타인 표상, 부모양육행동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훈진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 (151-746) 서울 관악구 관악로 599
Fax : 02-880-6428 / E-mail : hjlee83@snu.ac.kr

www.kci.go.kr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편집증 환자들이 위협관련 자극에 주의 및 기억 편향을 보이고(예, Bentall & Kaney, 1989; Fear, Sharp, & Healy, 1996), 부정적 자기개념과 방어적 귀인양식을 지닌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이훈진, 1997; Candido & Romney, 1990; Kinderman & Bentall, 1996). 그러나 이는 대부분 편집증 환자들의 현재 특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편집증의 형성, 발달, 유지과정과 관련된 발달정신병리학적 측면은 다루지 않았다. 이와 관련되어 고려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변인이 초기 애착이다.

애착(attachment)이란 영아와 어머니 사이의 유대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Ainsworth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전 생애에 걸친 이원적인 애정적 유대관계라고 정의되고 있다(장휘숙, 1997; Ainsworth, 1989, Feeney & Noller, 1990; Hazan & Shaver, 1987; Kirkpatrick & Davis, 1994). 이러한 애착 연속성의 기반에는 자신과 세상에 대해 형성하는 정신적 표상인 내적 작동 모델이 있으며(Bowlby, 1973), 이것이 자기개념, 타인개념과 같은 좀 더 일반화된 신념 및 기대로 추상화되는 것이다(Harmmen, Burge, Daley, & Davila, 1995). 즉, 개인이 정상적인 발달 경로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주요 요인으로 애착의 문제를 언급할 수 있으며, 애착의 질이 개인의 발달적 일탈에 있어서 취약성의 정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장휘숙, 1997; Bowlby, 1980, 1988; Overton & Horowitz, 1991). 이를 반영해 최근 들어 정신병리와 애착의 관련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Sable, 2000). 실제로 정신분석, 대상관계 및 사회학습 이론의 입장에서는 편집증의 발달적 배경으로 부모 양육 방식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Cameron, 1963; Klein, 1932; Millon & Davis, 1996), Trower와 Chadwick (1995)에 의해 제시된 '피해 편집증(persecutory paranoia)'과 '처벌 편집증(punishment paranoia), 그리고 Millon과 Davis(1996)의 편집성 성격장애 4유형 구분, 즉, 자기애적 편집형(paranoid-narcissistic), 가학적 편집형(paranoid-sadistic), 강박적 편집형(paranoid-compulsive), 불평적 편집형(paranoid-negativistic) 역시 어린 시절의 상이한 양육 경험과 초기 애착의 유형에 따라 편집증의 특성이 달라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 애착 유형은 편집증의 이해와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으며, 하위 유형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증과 애착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드문 편이다. 국외 연구로는 Rosenstein과 Horowitz(1996)가 편집성 성격장애 집단의 초기 애착 유형 연구를 통해 무시형(dismissing) 애착이 편집성 성격장애와 관련된다고 했으며, 국내 연구로는 이훈진(2002, 2004)이 편집성향 및 피해망상 집단을 대상으로 성인 애착 유형을 알아본 연구가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초기 애착 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성인기 애착 유형에 기반한 것으로서, 현재 성인기의 대인관계 태도 및 유형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는 있으나 초기 애착 관계 및 이와 관련된 내적 실행 모델을 알아볼 수 없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편집성향자를 대상으로 초기 애착을 평가할 수 있는 성인애착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을 실시한 후, 애착 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는

www.kci.go.kr

편집성향 집단의 초기 애착 유형 분포를 제공할 것이며, 초기 애착 유형 분포와 성인기 애착 유형 분포와의 일치도 정도를 알려줄 것이다. 또한, 상이한 초기 애착 유형을 지닌 편집성향자들이 애착유형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변인이면서 동시에 편집증의 핵심 변인들인 자기 및 타인개념, 우울 정도, 지각된 부모양육 행동, 성인기 애착유형에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방 법

연구대상

대학생 492명(남 305, 여 187)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21.93세였다. 이 중 편집 척도(M=23.08, SD=11.23) 점수가 상위 1표준편차 이상(34점 이상)인 경우를 편집성향 집단으로 선발하였다. 그 결과 80명(남: 46명, 여: 34명)의 편집성향 집단이 선발되었으며, 이 중 30명(남 16, 여 14, 평균 연령 20.57세)을 무작위 추출해 성인애착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초점이 편집성향 집단의 초기애착 분포를 알아보는 것이고, 일반인 집단의 초기애착 분포에 대한 자료가 비교적 풍부하며, 성인애착면접 실시 및 분석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드는 관계로 통제 집단에는 실시하지 않았다.

측정도구

편집 척도(Paranoia Scale: PS)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제작한 척도로 피해의식, 불신 등의 편집증적 경향을 측정한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 상에서 응답한다.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보고한 척도의 내적 일관성(α)은 .88 ~ .92였으며,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7이었다.

자기개념 질문지(Self-concept Scale: SCS)

이훈진(1997)이 제작한 척도로 자기의 특정 하위 속성인 신체, 도덕, 성격, 가정, 사회, 능력을 측정한다. 각 하위 영역별 문항 수는 5문항으로 총 30문항이며, 5점 척도로 측정한다. 이훈진(1997)이 보고한 내적 일관성(α)은 .92였으며,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1이었다.

타인개념 질문지(Other-concept Scale: OCS)

이훈진(1997)이 제작한 척도로 자기개념 질문지의 내용을 일반적인 다른 사람에 대한 지각 형식으로 바꾸어 표현한 것이다. 이훈진(1997)이 보고한 내적 일관성(α)은 .89였으며,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9였다.

한국판 Beck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우울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Beck, Ward, Mendalson, Mock과 Erbaugh(1961)가 제작한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에 의해 번안된 한국판 Beck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Beck 우울 척도의 내적 일관성(α)은 .98, 반분신뢰도는 .91로 보고되었다.

대인관계 질문지(Relationship Style of Questionnaire: RSQ)

Griffin과 Bartholomew(1994)가 만든 총 30문항의 5점 척도 질문지로, 성인의 애착 유형을 측정하도록 고안되었다. 애착 유형은 안정형,

www.kci.go.kr

거부형, 몰입형, 두려움형의 총 4유형으로 분류된다. 이귀선과 정남운(2003)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들이 보고한 내적 일관성(α)은 .75였고, 안정형, 거부형, 몰입형, 두려움형 각각의 내적 일관성(α)은 .58, .62, .51, .76이었다.

부모양육행동 척도(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BI)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허묘연(2000)이 개발한 척도로 애정, 합리적 설명, 학대, 과잉간섭, 과잉기대, 감독, 방치, 비일관성의 8개 차원으로 분류된다. 총 4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중 주 애착대상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답하게 하였다. 요인 별 내적 일관성(α)은 .68 ~ .86으로 보고되었다.

성인 애착 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

Main, George와 Kaplan(1985)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애착과 관련된 성인의 내적 작동 모델을 측정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이 면접은 평균 1시간 정도 소요되는 반구조화된 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총 20문항을 통해 어린 시절 경험 및 현재의 마음 상태를 보고하도록 한다.

면접은 연구자를 포함한 임상심리학 전공 대학원생 3명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면접 시 실시된 질문은 이경숙, 신의진, 김혜연(1999)에 의해 제공된 성인 애착 면접 프로토콜을 따랐다. 면접의 내용은 전부 녹음된 후 전사(transcript)되었으며, 이에 대한 분석은 미국 Minnesota 대학에서 실시한 AAI 훈련 워크샵에 참석한 2인에 의해서 평가되었고, 두 평정자 간 일치도는 k=.83, p=.00이었다. 불일치를 보인 사례들에 대해서는 두 평정자간 논의에 의하여 일치하도록 하였다.

분석은 총 세 단계로 구성되며, 첫 단계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경험(애정, 거부 경험, 역할 전도)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각각 5점 척도로 평정한다. 두 번째 단계는 애착을 분류하는데 있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현재의 마음 상태에 관한 영역으로 이를 다섯 가지 영역(부모에 대한 이상화, 아동기 회상의 어려움, 부모에 대해 표현된 분노, 애도나 상처에 대한 해결의 부족, 진술의 일관성)으로 분류하여 위와 동일하게 5점 척도로 평정한다. 마지막으로는 앞의 두 단계에 근거하여 자율형(Secure-autonomous, F), 무시형(Dismissing, Ds), 몰입형(Preoccupied, E), 미해결/비조직화형(Unresolved/disorganized, U/d) 중 한가지로 분류하게 된다.

결 과

편집성향 집단의 초기 애착유형 분포

편집성향 집단이 보이는 초기 애착 표상 4유형의 분포를 표 1 상단에 제시하였다. 자율형(F)이 8명(26.7%), 무시형(Ds)이 11명(36.7%), 몰입형(E)이 8명(26.7%), 미해결/비조직형(U/d)

표 1. 편집성향 집단의 초기 애착 표상 4유형 및 3유형 분포

	자율형 (F)	무시형 (Ds)	몰입형 (E)	미해결/비조직형(U/d)
4 유형	8(26.7)*	11(36.7)	8(26.7)	3(10.0)
3 유형	9(30.0)	11(36.7)	10(33.3)	

* 괄호 안은 비율(%)

www.kci.go.kr

이 3명(10%)으로 분류되었다. 초기 애착 표상 4유형은 미해결/비조직형(U/d)에 이차적인 분류를 하여 3유형으로의 재분류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결과는 표 1 하단에 제시하였다. 분류 결과, 자율형(F)이 9명(30.0%), 무시형(Ds)이 11명(36.7%), 몰입형(E)이 10명(33.3%)이었다.

초기 애착유형별 편집 및 우울, 자기개념 및 타인개념, 부모양육행동 점수

편집 및 우울 척도, 자기개념 및 타인개념 점수,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점수에서 유형 간 차이가 있는지 변량분석한 결과와 집단 간 차이에 대한 LSD 검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측정치에서 세 편집성향 집단 모두 통제 집단과 차이를 보였으므로, 결과 기술은 세 애착유형 간 차이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편집척도에서 세 애착 유형 간 차이는 없었으며, 우울점수에서는 자율형 초기 애착 집단이 무시형 초기 애착 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자기개념 점수는 세 애착 유형간 차이가 없었으나, 타인개념 점수에서는

표 2. 집단별 편집 및 우울, 자기개념 및 타인개념, 부모양육행동 점수

	편집자율형 애착(A) (n=9)	편집무시형 애착(B) (n=11)	편집몰입형 애착(C) (n=10)	통제집단(D) (n=81)	F	LSD
편집척도	43.22(9.96)	41.00(6.28)	42.30(5.74)	9.07(2.64)	417.66***	A=B=C>D
우울척도	19.56(13.24)	12.45(7.60)	15.80(9.83)	3.76(3.78)	29.86***	A, B=C>D, A>B
자기개념	94.44(14.13)	105.64(12.00)	98.00(16.50)	120.01(12.55)	18.63***	A=B=C<D
타인개념	98.89(10.90)	88.27(11.40)	98.40(10.51)	105.30(9.84)	11.89***	A, B, C<D, B<C
애정	2.72(.91)	2.83(.40)	2.92(.81)	3.26(.58)	3.72*	A=B<D, B=C
감독	2.67(.80)	2.84(.54)	2.65(.80)	2.87(.67)	.50	A=B=C=D
학대	1.37(.48)	1.44(.62)	1.47(.68)	1.13(.30)	4.22**	B=C>D
합리설명	2.24(.90)	2.20(.68)	2.40(.82)	2.74(.65)	3.56*	A=B<D, B=C
방치	1.33(.39)	1.76(.43)	1.42(.55)	1.13(.28)	13.03***	A=C<B, B, C>D
과잉간섭	2.02(.88)	2.61(.92)	2.51(.81)	1.81(.66)	6.06**	B=C>D
비일관성	1.75(.60)	2.09(.71)	2.17(.80)	1.55(.53)	5.40**	B=C>D
과잉기대	2.46(.55)	2.67(.82)	3.27(.57)	1.98(.63)	14.90***	C>A=B>D

괄호 안은 표준편차

LSD 검증결과에서 부등호 표시는 각 조건에서의 평균값이 유의미하게($p < .05$) 더 크거나 작음을 나타내고, 등호 표시는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나타냄. 비교의 편의를 위해 자율형 애착 편집성향 집단을 A, 무시형 애착 편집성향 집단을 B, 몰입형 애착 편집성향 집단을 C, 통제집단을 D로 표시함.

*$p < .05$. **$p < .01$. ***$p < .001$.

www.kci.go.kr

무시형 초기애착 집단이 몰입형 애착 집단보다 낮아 부정적인 타인지각을 나타냈다. 요약하면, 편집성향 집단은 초기 애착유형과 상관없이 통제 집단보다 부정적인 자기, 타인 개념을 나타냈으나 무시형 애착유형의 경우, 몰입형 애착 집단보다 타인개념이 더 부정적이었다.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에서는 무시형 초기애착 편집성향 집단이 자율형과 몰입형보다 부모가 자신을 더 방치했다고 보고했다. 과잉기대 요인에서는 몰입형이 자율형과 무시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 성인기 애착유형 분포

성인기 애착 유형이 분류되지 않은 사례를 제외한 후, 초기 애착유형에 따른 성인기 애착 유형 분포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초기 애착 표상에 의해 자율형으로 분류된 8명의 편집성향 집단 중 3명(37.5%)이 성인 애착 유형에 의해서도 안정형으로 분류되었으며, 2명은 거부형, 2명은 몰입형, 1명은 두려움형으로 분류되었다. 반면 초기 애착에서 무시형으로 분류된 7명의 편집성향 집단은 몰입형 4명, 두려움형 3명이었고 안정형, 거부형은 없었다. 초기 애착에서 몰입형으로 분류되었던 편집성향 집단 7명도 거부형 1명, 몰입형 3명, 두려움형 3명으로 분류되었다.

표 3. 초기 애착유형에 따른 성인기 애착 유형 분포

성인 \ 초기	자율형 (F)	무시형 (Ds)	몰입형 (E)	총계
안정형	3	0	0	3(13.6)
거부형	2	0	1	3(13.6)
몰입형	2	4	3	9(40.9)
두려움형	1	3	3	7(31.8)
총계	8(36.4)	7(31.8)	7(31.8)	22(100)

* 괄호 안은 비율(%)

전체적으로, 초기 애착 유형 중 무시형 및 몰입형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성인기에도 거부형, 몰입형, 두려움형과 같은 불안정 애착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 내적 작동 모델이 유지되는 반면, 자율형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안정형 뿐 만 아니라 거부형, 몰입형, 두려움형 등 다양한 양상을 보임으로써, 이후의 대인관계 경험에 따라 성인기 애착 유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로, 초기에 선발된 편집성향 집단 80명과 통제집단 81명 중 성인기 애착유형이 4 유형 중 하나로 분명히 구분된 사람들의 분포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편집성향 집단은 안정형이 7명(17.1%), 거부형이 3명(7.3%), 몰입형이 16명(39.0%), 두려움형이 15명(36.6%)로, 4범주의 애착 유형 중 몰입형과 두려움형이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반면, 통제 집단은 안정형이 48명(82.8%), 거부형이 1명(1.7%), 몰입형이 7명(12.1%), 두려움형이 2명(3.4%)으로 나뉨으로써, 대부분의 피험자들이 안정형으로 분류되었다. 즉, 편집성향집단과 통제 집단은 애착유형별 분포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chi^2(3, N=99)=43.387$, $p < .001$.

표 4. 편집성향 집단과 통제 집단의 성인기 애착 유형 분포

	안정형	거부형	몰입형	두려움형
편집성향	7(17.1)*	3(7.3)	16(39.0)	15(36.6)
통제	48(82.8)	1(1.7)	7(12.1)	2(3.4)

* 괄호 안은 비율(%)

www.kci.go.kr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편집증의 발달정신병리학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편집 성향 집단을 대상으로 성인애착면접(AAI)을 실시하여, 초기 애착 유형 분포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Trower와 Chadwick(1995)에 의해 제시된 '피해 편집증'과 '처벌 편집증'이나 Millon과 Davis(1996)에 의한 편집성 성격장애의 4유형(자기애, 가학, 강박, 불평형)이 어린 시절의 상이한 양육 경험에 근거한 것임을 감안하여, 초기 애착의 유형에 따라 편집증의 특성이 달라지는지를 알아보았다.

성인애착면접 결과에 따르면, 무시형이 36.7%, 몰입형이 26.7%, 자율형이 26.7%, 미해결/비조직화형이 10.0%로 분류되었으며, 이를 다시 3범주로 분석한 경우에는 무시형이 36.7%, 몰입형이 33.3%, 자율형이 30.0%였다. 일반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 연구에서 무시형이 16%, 몰입형이 9%, 자율형이 55%, 미해결/비조직화형이 19%로 분류되었음을 감안할 때, 무시형 및 몰입형은 많은 반면, 자율형은 적은 분포를 보인 것이다(최해훈, 이경숙, 김태련, 1998; Bakersmans-Kranenburg & van IJzendoorn, 1996).

집단 비교 결과, 무시형 초기 애착을 보인 편집성향 집단과 몰입형 집단은 통제집단보다 모두 낮은 자기 개념 및 타인 개념을 지니고 있었지만, 무시형 집단이 몰입형보다 더 부정적인 타인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에서는 무시형 초기애착 편집성향 집단이 자율형과 몰입형보다 부모가 자신을 더 방치했다고 보고했다. 과잉기대 요인에서는 몰입형이 자율형과 무시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초기 애착 유형 별 특성은 이훈진(2002, 2004)의 성인기 애착유형 특성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대학생 편집성향 집단 및 피해망상 집단에서 대다수를 차지한 몰입형 및 두려움형 성인애착 집단은 모두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가지고 있으나 대인 관계 형성을 원하면서도 상대방의 평가와 인정에 과민한 경우와 타인으로부터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 해 친밀한 관계형성을 회피하는 경우로 설명되었다. 즉, 초기 애착에 따른 몰입형 집단과 무시형 집단이 성인 애착 유형에 기반한 몰입형 집단과 두려움형 집단과 각각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성인 애착 유형 분포에서도 반복 검증되었다.

주목할 결과는 자율형 또한 26.7%의 비율을 차지했으므로 현재의 편집성향을 전적으로 초기 애착문제에 귀인 시킬 수는 없다는 점이다. 자율형 초기애착 집단으로 분류된 피험자들의 경우 편집 점수에서는 무시형 애착 집단 및 몰입형 애착 집단과 차이가 없었지만, 우울 점수에서는 무시형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성인기 애착 유형도 안정, 거부, 몰입, 두려움이 골고루 분포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집단은 상황적 편집성향을 나타내는 집단일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편집증의 원인론을 언급함에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이 언급되곤 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으로서 타문화에 대한 노출되는 것(Bhugra, Leff, Mallett, & Mahy, 1999)과 같이 희생이나 약자를 양산해내는 사회 환경(Mirowsky & Ross, 1983)에서는 망상적 확신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타인에 의해 개입되는 생활 사건을 경험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편집성 사고가 발달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Harris, 1987). 이러한 사실들은 애착이 아닌 성장과정에서의 경험과 환경에 따른 편집성향 발달이 가능함을 시사하며, 본 연구에서 초기에 자율형 애착을 가

www.kci.go.kr

진 사람이 편집성향 집단이 된 것도 이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 애착 면접을 통한 유형 분류 뿐 아니라 성인 애착 질문지를 통한 유형 분포 또한 살펴보았다. 편집성향 집단 및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성인 애착 유형을 분류한 결과, 편집성향 집단은 몰입형이 16명(39.0%), 두려움형이 15명(36.6%), 안정형이 7명(17.1%), 거부형이 3명(7.3%)인 반면, 통제집단은 안정형이 48명(82.8%)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몰입형이 7명(12.1%), 두려움형이 2명(3.4%), 거부형이 1명(1.7%)이었다. 편집성향 집단의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이훈진(2002, 2004)의 연구와 비슷한 패턴이나 거부형이 10~15%를 차지하는 이전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그 비율이 적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척도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을 듯한데, 즉, 기존 연구는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Self-report Attachment Style(SAS)을 사용한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Griffen과 Bartholomew(1994)의 Relationship Style of Questionnaire(RSQ)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전자는 각 유형에 대해 자신이 일치하는 정도를 점수로 평정하고, 4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며, 후자는 30문항에 근거한 가장 높은 점수를 피험자의 애착 유형으로 할당하는 방법이 적용된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편집성향 집단은 일반인 집단보다 무시형, 몰입형과 같은 불안정한 초기 애착 양식을 형성한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양육 행동의 경우 무시형은 방치, 몰입형은 과잉기대와 관련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기존의 연구자들이 자주 언급했던 부모 양육의 문제가 편집 증상의 형성 요인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성인 애착 면접을 통해 분류된 무시형 집단과 몰입형 집단이 자기·타인 개념에서 다른 경향성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즉, 상이한 부모 양육 경험에 기인한 초기 애착 유형이 타인 개념의 정도 차이를 가져왔다고 언급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기존의 연구들이 애착 유형의 특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언급했던 사항들과 부합된다. 즉, 무시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타인을 신뢰할 수 없고, 거절적이라 여기는 부적인 표상을 지니는 반면, 몰입형의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는 정적인 표상을 지니므로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추구한다는 것이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Hazan & Shaver, 1987; Main, Kaplan, & Cassidy, 1985).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인 애착 면접을 통하여 초기 아동-부모 간의 관계에 기반한 내적 작동 모델을 최대한 반영하려 했으나, 횡단 연구라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린 시절의 부모 양육 경험과 애착 유형의 차이가 성인기 이후의 편집증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종단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성인 애착 면접에 통제 집단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초점이 편집성향 집단의 하위 집단 탐색이었고, 이미 통제 집단의 초기 애착유형 분포에 대한 참고 자료가 풍부하며, 시간과 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포함하지 않았으나 동일 전집에서 비교 군을 설정하여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로, 본 연구의 참가자들이 대학생들로 구성된 편집성향 집단이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편집성향 집단과 편집증 환자

www.kci.go.kr

집단 간의 연속성이 타당하게 지지되고 있으나(Fenigstein, 1994; Sarason & Sarason, 1987; Strauss, 1969), 여전히 일반화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두 집단의 자기·타인 개념 차이가 Stroop 과제(이훈진, 1997; Kinderman, 1994)를 비롯한 실험 맥락에서도 적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현적인 측정치들에 기반한 결과가 다른 방법론을 통한 연구들에서도 검증이 된다면 그 타당성은 더욱 확고해 질 것이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편집성향 집단의 초기 애착 유형 분포와 그에 따른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았고, 애착 유형에 따른 자기·타인 개념, 지각된 부모양육 행동, 성인기 애착 유형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편집증의 이해와 치료에 공헌하고 하위 유형 가능성을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편집성향 집단의 초기 애착 유형과 성인기 애착유형은 학술적 가치 이외에도 심리 치료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다. 즉, 치료 시에 치료자와의 관계 형성, 사례 개념화, 목표 설정 등에서 구별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시형 애착에 기인한 편집성향자들은 몰입형 애착에 기인한 편집증 환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타인 개념과 낮은 자존감을 지니므로 관계 형성에 보다 집중하며, 자기 및 타인 개념을 다룬 후 편집 신념을 다룬다면 좀 더 좋은 치료 성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이경숙, 신의진, 김혜연 (1999). 아동의 정신병리와 어머니의 성인애착표상 유형(AAI)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 103-115.

이귀선, 정남운 (2003).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과 효과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 779-793.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98-113.

이훈진 (1997). 편집증과 자기개념 및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이훈진 (2002). 편집증 집단의 애착유형과 가족 응집성 및 가족 의사소통.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791-807.

이훈진 (2004). 피해망상 집단과 우울증 집단의 지각된 부모양육행동과 애착유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 381-395.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성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 83-94.

장휘숙 (1997). 애착의 전생애 모델과 대물림: 전생애 발달심리학적 조망에서 애착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6, 80-97.

최해훈, 이경숙, 김태련 (1998). 영아의 애착유형과 성인의 애착 표상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 131-142.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Bakermans-Kranenburg, M. J., & van IJzendoorn,

www.kci.go.kr

M. H. (1996). Attachment representations in mothers, fathers, adolescents, and clinical groups: A meta-analytic search for normative dat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8-21.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Beck, A. T., Ward, C. H., Mendalson, M., Mock, J., & Erbaugh, J. (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 561-571.

Bentall, R. P., & Kaney, S. (1989). Content -specific information processing and persecutory delusions: An investigation using the emotional Stroop test. *British Jounal of Medical Psychology*, *62*, 355-364.

Bhugra, D., Leff, J., Mallett, R., & Mahy, G. E. (1999). First-contact incidence rates of schizophrenia on Barbado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5*, 28-33.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e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Bowlby, J. (1988). *A secure base: Clinical ap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London: Routledge.

Cameron, N. (1963). *Personal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Boston: Mifflin Company.

Candido, C. L., & Romney, D. M. (1990). Attributional style in paranoid vs depressed patients.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3*, 355-363.

Fear, C. F., Sharp, H., & Healy, D. (1996). Cognitive processes in delusional disorder. *British Jounal of Psychitary*, *168,* 61-67.

Feene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s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81-291.

Fenigstein, A. (1994). Paranoia. In V. S. Ramachandran(Eds.), *Encyclopedia of human behavior(V. 3)*. San Diego: Academic Press.

Griffin, D., & Bartholomew, K. (1994). Models of the Self and Other: Fundamental Dimensions Underlying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430-445.

Harmmen, C. L., Burge, D., Daley, S. E., & Davila, J. (1995). Interpersonal attachment cognitions and prediction of symptomatic responses to interpersonal stres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 436-443.

Harris, T. (1987). *Recent developments in the study of life events in relation to psychiatric and physical disorders.* London: Croom Helm.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Kinderman, P. (1994). Attentional bias, persecutory delusions and the self concep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7, 53-66.

Kinderman, P., & Bentall, R. P. (1996). Self -discrepancies and persecutory delusions: Evidence for a defensive model of paranoid ide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www.kci.go.kr

106-114.

Kirkpatrick, L. A., & Davis, K. E. (1994). Attachment style, gender, and relationship stability: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502-512.

Klein, M. (1932). *The psychoanalysis of Children.* New York: Grove Press.

Main, M., George, C. & Kaplan, N. (1985). *The Berkeley Adult Attachment Interview. Unpublished protocol*.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66-104.

Millon, T., & Davis, R. D. (1996). *Disorders of Personality DSM-IV and Beyond.* New York: John Wiley & Sons.

Mirowsky, J., & Ross, C. E. (1983). Paranoia and the structure of powerlessn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228-239.

Overton, W. F., & Horowitz, H. A. (1991).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tegrations and differentiations.*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Rosenstein, D. S., & Horowitz, H. A. (1996). Adolescent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244-253.

Sable, P. (2000). *Attachment and adult psychopathology*. Northvale: Jason Aronson Inc.

Sarason, I. G., & Sarason, B. R. (1987). *Abnormal Psychology(5th ed.)*. New Jersey: Prentice-Hall.

Strauss, J. S. (1969). Hallucinations and delusions as points on continua function: Rating scale evidenc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21,* 581-586.

Trower, P., & Chadwick, P. (1995). Pathways to defense of the self: A theory of two types of paranoia.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2*, 263-278.

원고접수일 : 2007. 11. 13.
게재결정일 : 2008. 05. 07.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8, Vol. 27, No. 2, 471-482

The Early Attachment Styles of Paranoid Students

Hye-Rin Yoo
Department of Psychiatry
Asan Medical Center

Kyung-Sook Lee
Department Rehabilitation
Hanshin University

Hoon-Ji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early attachment styles of students with paranoid tendencies and examin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major psychological variables among subgroups of students categorized by early attachment style. Thirty students with paranoid tendencies from a group of 492 college students were interviewed according to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protocol. The results showed that 9 students (30.0%) had an autonomous attachment style, 11 (36.7%) had a dismissing style, and 10 (33.3%) had a preoccupied style. Self and other concepts, depression scores,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and adult attachment styles were compared across the 4 groups (autonomous, dismissing, preoccupied, and the controls). As for self and other concepts, the students in the dismissing and preoccupied groups both reported more negative concept of self and others when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However, the students in the dismissing group tended to have a more negative concept of others than those in the preoccupied group. With regards to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the students in the dismissing group reported more neglect than those in the preoccupied group, while the students in the preoccupied group reported more excessive parental expectations than those in the dismissing group.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nd direc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paranoia, early attachment styles, self and other concepts, parenting behavior

www.kci.go.kr